# 공기업·시중銀 '역대 최대 채용'… '은행考試' 부활

**미리보는 하반기 채용**

4대 시중은행 2300여 명
코레일·한전 등 600여 명
LCC업계 800여 명 채용

은행권과 공공기관들의 2018년 하반기 채용이 역대 최고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8 SK 동반성장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청년 구직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은행권과 공공기관 등을 위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은행권은 채용절차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부터 이른바 '은행고시'를 부활시킬 전망이다.

11일 인크루트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이 하반기 2300명을 채용할 예정이고, 지방은행들은 지역인재 채용에 나선다.

**◆4대 시중은행 하반기 2300명 채용키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채용비리 여파로 주춤했던 은행권은 최근 채용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모범규준 초안에는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도입과 함께 서류전형 외부기관 위탁, 블라인드 면접, 임직원 추천제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계기로 주요 은행들이 하반기 본격 채용을 예고했다.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하반기 채용 규모는 2000여 명에 이를 전망으로 우리은행은 하반기에 550명을, 신한은행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인 450명 안팎의 채용을 계획 중이다. KEB하나은행도 연내 250여 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의 하반기 충원인원은 500명 이상으로 점쳐진다.

지방은행은 지역인재 채용에 나선다. 가장 먼저 채용 윤곽을 밝힌 곳은 JB금융지주로, 올해 하반기 자회사인 전북은행 50명, 광주은행 60명 등 총 110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한다. JB금융지주는 이번 채용이 청년층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디지털뱅킹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공기업 9개사 1309명 채용**

주요 공기업도 하반기 채용에 가세한다.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공기업 9개사가 올 하반기에 총 1309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 600명, 동서발전 136명, 서부발전 130명, 한전KDN 114명, 남부발전 103명, 중부발전 90명, 한국수력원자력 60명, 한전KPS 60명, 남동발전 16명 등이다. 코레일은 앞서 올 상반기에 공사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인 1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반기에도 600여 명을 추가 채용한다.

**◆주요 저비용 항공사, 하반기 800여명 신규 채용**

여객수요 증가와 연내 신규 항공기 도입을 앞둔 저비용 항공사들도 하반기 신규 채용에 적극적이다. 우선 제주항공은 하반기 전 부문에 걸쳐 신입과 경력직 180여 명을 채용한다. 진에어는 작년 400여 명에 달하는 인력을 신규 채용한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17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티웨이항공은 하반기 140명을 포함해 올해 400여 명 수준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에어부산은 연말까지 250여명의 신입직원을 추가 채용해 올해 총 450명 충원계획을 세웠다. 이밖에 이스타항공도 하반기 100명을 신규채용하고, 에어서울 역시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요 저비용 항공사 신규 채용은 하반기에만 약 800여명, 상하반기를 통틀어 총 2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보건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첫 AI 면접**

특히 이번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는 AI(인공지능)채용 확대가 예상된다. AI채용은 상반기 일부 민간기업에서 시범형태로 시행됐다. 롯데그룹의 경우 서류평가 과정에서 AI를 도입했고, 마이다스아이티는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면접 솔루션 '인터뷰(inTERVIEW)'를 선보인 바 있다. 이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처음으로 채용전형 중 면접에서 AI를 활용하기로 했다. AI 면접은 면접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접속해 얼굴 인식을 거쳐 직군별 제시되는 게임테스크 수행과 심층·구조화 질문 등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AI 활용 면접이 확산될지도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총장직선제 요구하는 동덕여대 학생들**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서 열린 '학생참여 총장직선제 요구' 행진에 앞서 재학생들이 학교 변화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코스닥 상장사 '연봉 1위' 셀트리온헬스케어

〈평균 1억3500만원〉

시총 50대 기업 대상
평균 연봉 5500만원
바이오·제약社 상위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많은 코스닥 상장사 중 시가총액 50대 기업의 평균 연봉은 55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은 코스닥 시총 상위 50대 기업(한국거래소 5월 28일 기준) 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1인 평균 급여를 기재한 46개사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연봉 1위는 ▲셀트리온헬스케어로 1인 평균 1억 3500만원을 지급했다. 2위는 ▲SKC코오롱PI(1억700만원)가 차지했고, ▲스튜디오드래곤(9400만원) ▲에스에프에이(8400만원) ▲톱텍(8400만원) ▲고영(8300만원) ▲CJ E&M(7300만원) ▲포스코켐텍(7300만원) ▲원익IPS (7000만원) ▲포스코ICT(7000만원)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연봉 상위사 중에는 바이오·제약과 문화 컨텐츠, 모바일 소재산업이 강세를 보였다.

남녀별로 합계 평균 연봉을 밝힌 기업(32개사)을 비교한 결과 남성 직원의 평균 연봉은 6200만원으로, 여성(4200만원)보다 2000만원이나 많았다. 코스닥 시총 상위 기업 중 제조·생산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성직원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은 ▲스튜디오드래곤으로 1억1200만원을 지난해 평균 급여로 지급했다. 이어 ▲SKC코오롱PI (1억1100만원)▲휴젤(8800만원)▲에스에프에이(8600만원)▲고영(86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여성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기업 역시▲스튜디오드래곤(7300만원)이었고, ▲고영(6300만원)▲톱텍(6100만원)▲SKC코오롱PI(5800만원) 등이 있었다. /한용수 기자

# 직업계高, '노동인권·산업안전 교육' 받는다

**교육부** 교사 집합연수도 2배 확대

교육부. /메트로신문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등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과 산업안전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과 교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과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들은 올해부터 정규 교육과정으로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을 듣게 된다.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이 공통으로 배우게 되는 성공적인 직업생활 과목은 근로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대단원으로 편성돼 학생들에게 예비 직업인으로서 노동인권에 관한 소양을 갖추도록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인 6월말부터 9월까지 전국 587개 직업계 고교를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안전교육은 전국 27개 안전보건공단 지사의 전문 강사가 관할 지역 학교를 방문해 직군별 재해사례와 산재 발생시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포함해 전체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은 교육부 위탁으로 고용노동연수원이 개설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온라인교육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올해 말까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20여분씩 15차시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교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인권 연수도 강화한다. 지난해 3천명이 참여한 집합연수를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6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올해 8월부터는 교사 원격연수 과정을 만들어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운영한다. /한용수 기자

# 2030 76% '캥거루족'… "부모로부터 생활비"

미혼 성인남녀 806명 대상
취준생 〉 학생 〉 직장인 순

2030세대 미혼 성인남녀 10명 중 7명 이상은 부모와 함께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세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다.

11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2030세대 미혼 성인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6.1%가 현재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76.9%)이 남성(73.4%)에 비해, 20대(78.3%)가 30대(66.4%)에 비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취업준비생(79.0%), 학생(76.7%), 직장인(69.5%) 순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이유로는 ▲자취에 들어가는 월세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 66.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외에 ▲독립을 하고 싶어도 부모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12.1%) ▲학교와 직장 등 통근에 문제가 없기 때문(9.8%)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7.3%) ▲혼자 살면 외롭기 때문(1.8%) 등의 소수 의견도 있었다.

'현재 독립해 혼자 살고 있다'고 답한 미혼 남녀들의 거주 형태를 조사해보니 ▲원룸(52.8%)이 가장 많았고, ▲빌라·다세대 주택(19.2%) ▲오피스텔(12.4%) ▲고시원(4.1%) 등이었고, 거주지 소유형태로는 ▲월세(63.7%)가 가장 많았고 ▲전세(18.7%) ▲하숙 또는 기숙사(11.4%) 등이었다. 한 달 평균 주거 비용은 40만2000원이었고, 주거관리비와 공과금(13만원) 등을 합하면 총 53만2000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들 2030세대 미혼 남녀들이 생각하는 독립 시기는 ▲취업 이후(48.8%)가 가장 많았고, ▲결혼 이후(26.4%) ▲20살 이후(19.1%) 등이었다. /한용수 기자

외국어 교육 전문 기업 시원스쿨과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최근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시원스쿨

**시원스쿨-사이버한국외대**

# '교육협력체계 구축' MOU

외국어 교육 전문 기업 시원스쿨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와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원스쿨 임직원과 회원은 사이버한국외대 입학(편입)시 30만원의 입학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수업료도 감면받을 수 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오는 7월 12일까지 2018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다. /한용수 기자